

“찬란하고 화려한 상하의 밤”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제’ 개막
9월 19일~10월 18일 한달간 진행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제가 1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상하이의 밤에 찬란하고 화려한 빛을 더할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제의 개막식이 19일 상하이 전람센터에서 열린다고 평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축제는 향후 한 달간 메인 행사장 1곳과 분회장 12곳에서 동시 개최된다. 푸둥신구, 황푸구, 징안구 등에 위치한 12개 분회장은 구역마다 고유의 특색을 뽐낼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건축물 프로잭션 쇼, 빛과 그림자 쇼, 빛과 그림자 예술 장치전, 조명 콘서트, 꽃차 퍼레이드, 문화 예술전 등 129개의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행사 개최 장소는 상하이 주요 상권, 공공 문화 시설, 주요 관광지, 주요 교통 허브, 시 공공 체

육관, 대형 전시장, 공원 등 비즈니스, 관광, 문화, 스포츠, 전시장 119곳에 달한다.

축제 추천 코스, 야경 명소 100여 곳을 소개하는 도시 빛과 그림자 지도도 출시된다. 해당 지도는 빛과 그림자 축제 메인 행사장, 분회장, 공항, 기차역 등에서 무료 배포되며 ‘신청광잉(申城光影, 상하이 시티 빛과 그림자)’ 위치 미니 프로그램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개막식을 앞두고 메인 행사장인 상하이 전람센터는 화려한 조명 옷을 입었다. 중앙 홀에는 맨눈으로 만끽할 수 있는 3D 몰입형 돔 쇼가 펼쳐진다. ‘빛과 그림자, 영원히 빛나다’는 주제로 상영되는 돔 쇼는 3분, 5분 각 두 가지 버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의 전통 문화, 상하이 문화 브랜드, 인

민 도시 건설의 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이 전람센터 남광장에는 신고전주의 양식 건축물에 투영되는 프로젝션 쇼가 펼쳐진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탐색하여 빛과 그림자의 아름다움에 빠진다’는 주제로 4분간 상영되는 이 쇼는 ‘샤오P(小P)’라고 불리는 AI 로봇이 관광객들을 상하이의 매력에 흠뻑 빠지도록 안내한다.

동쪽 광장에 설치된 10개의 다채로운 풍선 장치도 관람객에 참여하는 재미를 더한다. 앞에 놓인 마이크에 바람을 불면 풍선 위에 빛이 반짝이고 바람 세기에 따라 다양한 조명 효과를 나타낸다. ‘하이멍(晦冥, 상하이 드림)’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두 명의 외국인 예술가가 공동 창작한 결과물이다.

‘빛과 자연’, ‘빛과 도시’, ‘빛과 상상’, ‘빛과 우리’라는 네 가지 장으로 나누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내외 브랜드 업체 26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해외 브랜드는 10곳으로 약 40%에 달한다. 이 밖에 전시는 산업 전시회, 성과 전시회와 함께 세계 첨단 신기술과 도시 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마음껏 보여줄 예정이다.

2024.9.19.-10.18

: 静安区延安中路1000号 上海展览中心(9.19-9.27)

: 浦东新区, 黄浦区, 静安区, 徐汇区, 长宁区, 普陀区, 虹口区, 杨浦区, 松江区, 青浦区, 奉贤区, 临港新片区

(9.21-10.18)

深圳서 피습당한 일본인 초등생 숨져

6월 苏州서도 스쿨버스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 피습당해
주중대사관 “거동 수상자들의 돌발행동에 유의” 당부

중국 선전에서 지난 18일 오전 등굣길에 괴한에 습격을 당한 일본인 초등생이 치료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중 일본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등굣길에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선전 일본인 학교 남학생(10세)이 치료를 받다 구조되지 못하고 19일 새벽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깊은 슬픔과 유감을 표하며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재중 일본 교민 보호에 힘쓰고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숨진 10세 일본인 초등생은 학교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전 남산구 경찰에 따르면, 일본 초등생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44세 종(钟) 씨로 범행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은 이날 아침 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던 피해자를 향해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는 복부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남성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기시마 주광저우일본총영사는 일본인을 특정한 범행인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선전 일본인 학교는 이번 주 휴교할 예정이다. 일본 영사관은 학교와 함께 안전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4일 장쑤성 쑤저우에서도 중국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일본인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인 모자는 경상을 입었으나 학교 셔틀버스에 올라타려던 남성을 저지한 중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전 일본인 학생 피습 사망과 관련, 주중대사관 영사부는 “교민분들께서는 거동 수상자들의 돌발 행동에는 항상 유의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즉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해외안전담당팀	
평일 09시~18시	010)8531-0700, 8532-0404
평일 18시~익일 09시 주말/공휴일	186-1173-0089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중 24시간	+82-2-3210-0404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한 채팅 상담 가능	

大惠 建築

INTERIOR DESIGN & ARCHITECTURE

대혜건축

DAEHYE Interior Design Company

대혜건축(上海)有限公司

上海市闵行区吴中路1238号5楼G座

TEL : 021-5422-1691(1692)